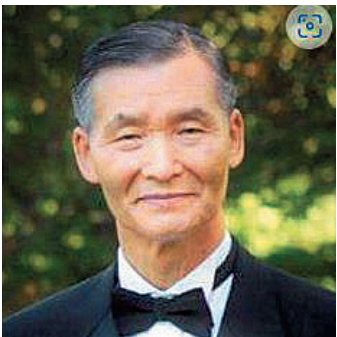




특집 _ 국내외 동포 경제인 상생 한마당...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울산서 열려
 기획 _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서 성료...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
 화제 _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서울서 열려... '민간 외교관' 역할 논의
 민혜경 국제결혼여성총연 이사장 "200만 국제결혼 가족 활용해야"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김진표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님,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님, 그리고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김점배 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한상 여러분이 모처럼 고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거나 축소돼 오지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48개국에서 천여 명이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창한 이 가을날, 고국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재외동포로 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법과 제도. 거기다가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까지. 어려움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 구석구석까지 소개했고, 때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한상과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들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입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병무, 문화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상 여러분! 세계 경제에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금리와 물가,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전쟁과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든든한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와 전쟁의 잣데미를 헤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로 거듭났습니다. K-컬처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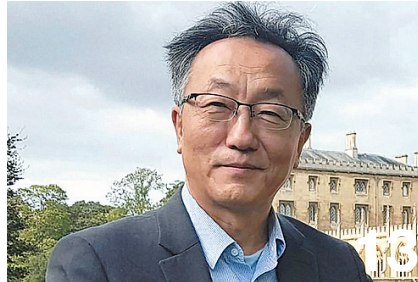
국회의장으로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동포 여러분을 만납니다. 많은 분이 “대한민국이 모국인 것이 자랑스럽다”, “든든한 친정을 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계한상대회가 올해로 스무 번째 열립니다. 이 잔치에 지난 20년 동안, 대략 6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상담액 5조 원. 고용 유발 효과 6천 명.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찾는 청년만 해도 약 1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한상대회는 고국과 재외동포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20차 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세계한상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에도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고국의 아름다움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 02 권두언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 04 특집 국내외 동포 경제인 상생 한마당...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울산서 열려
- 06 기획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서 성료... 한민족 공동체 변혁 논의
- 08 화제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서울서 열려... '민간 외교관' 역할 논의
'민혜경 국제결혼여성총연 이사장 "200만 국제결혼 가족 활용해야"'
- 10 한민족 공감 위상 높아진 미국 '한복의 날'... 연방 하원의원도 한복 입고 참가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에 관한 세상의 모든 지식' 책 발간
- 12 글로벌 코리안 한인 헤럴드 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 시의원 3선 성공
美 한인 스타일리스트, 英 패션협회 '올해의 뉴웨이브 50인'에 선정
권현익 케임브리지대 교수, 한국 학자로는 최초로 英 학술원 가입
- 14 유공 동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 한인 성(姓) 딴 상(賞) 생긴다
- 15 주목! 차세대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 "주류사회 함께하는 한국 축제 열겠다"
- 16 지구촌 통신문 "그녀 없인 외교 못해"... 美 국무장관, 한국계 통역국장 역할 조명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와 첫 '한국식' 졸업식
- 18 동포소식 세계한인회총연 "내외동포 상생·인류공영 이바지할 플랫폼 구축" 외
- 20 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유적
'백제 왕도(王都)'의 보석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한인의 美 하원의원 도전기 다룬 다큐 '초선' 시사회 외
- 24 동포 캘린더 호주 캔버라·시드니 '한민족 축제' 3년 만에 재개 외
- 25 기고문 포용적 재외동포 정책을 기대한다
김점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 26 재단공지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서비스 중단 안내합니다

11
2022

재외동포의 창

목표, 미래의 동포를 위한 신문인 '재외동포의 창'을 창간하며,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서 성료... 한민족 공동체 변혁 논의 화제...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서울서 열려... '민간 외교관' 역할 논의... '민혜경 국제결혼여성총연 이사장 "200만 국제결혼 가족 활용해야"'

워크숍 및

재외동포재단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동포 경제인 상생 한마당...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울산서 열려

48개국 한상·국내 중소기업인 등 2천 명 참석... 해외시장 진출 모색



1

전 세계 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상생 한마당’을 펼치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11월 1~3일 사흘간 울산광역시 울산전 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세계한상대회는 ‘위대한 한상(韓商)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48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민 등 일반 참관객을 포함하면 4천여 명 규모로 치러졌다. 이들은 대회 기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대회 기간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면접 등도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개회식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김점배 대회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승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울

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송용덕 롯데그룹 부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서울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 김성곤 이사장의 개회사, 김점배 대회장의 대회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축사 대독이 이어졌다. 울산 출신 1호 한상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생전 활동을 담은 특별영상도 상영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올해 대회는 새로운 20년의 상징”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대회가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20년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오만 알카오스트레이딩 회장인 김점배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한상들은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왔고 조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가교 구실을 해 왔다”며 “한상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의 위기로 경색 국면에 있는 자유무역주의에 숨통을 틔울 산소 공급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3



4

개회식에 앞서 13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기업전시회 개막식'도 열렸다. 개회식 후 오후에는 한상포럼, 비즈니스 이슈와 산업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대회 이틀째인 2일에는 한상비즈니스자문단 발대식, 스타트업 피칭대회, 리딩CEO 포럼, 한상 청년 온라인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한상비즈니스자문단은 네트워킹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친다.

이날 오전에는 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이 열렸다. 자문단은 공동대회장인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과 방호열 미국 G6 Global 대표, 자명 대표 등 글로벌 트렌드와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했다. 자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스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국 장외주식 상장을 위한 노하우를 소개했다.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6개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한 시간 내 자사 제품 또는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경제단체 총회와 스타트업 피칭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및 국내외 벤처캐피털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스타트업 피칭대회 대상에 프로메디우스, 최우수상에 골든크로우, 우수상에 프록시 헬스케어와 인투스카이를 선정했다. 이들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내년 한상대회 초청 기회도 주어졌다.

대회 기간 수출 상담 5천107억원... 한상기업, 청년 70명 인턴 채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상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수출 상담과 청년 인턴십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다. 그 결과 대회 기간 기업전시회와 관세무역상담회, 유통바이어 상담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에서 455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돼 3억5천970만 달러(약 5천10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동포 경제단체별 업무협약(MOU)도 4건 체결됐다.

이올러 '국내 청년 채용 인턴십 면접'을 통해 48개국 59개 한상기업이

70명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토크콘서트'는 1만3천 회의 조회수를 달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폐회식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한상 장학금 전달, 차기 개최지 홍보영상 상영, 한상기 전달에 이어 미국 한남체인 회장인 하기환 차기 대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20년 만에 첫 해외개최 등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다"며 "한상의 목표가 경제적 성공에만 있는 게 아니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민족공동체를 만들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 11월 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BCO) 열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전경
- 서울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애도하는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들
-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의 대표자들이 '제20차 세계한상대회' 폐막식 무대에 나란히 선 모습
- 폐막식에서 한상기 흔드는 하기환(가운데)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서 성료…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

64개국 한인사회 리더 333명 참가… “고국과 유대 강화”



1

전 세계 64개국 333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논의하고 고국과의 유대도 강화하는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4~7일 나흘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한인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이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개회식에는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대회 공동의장인 유제현 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 등 각국 한인

회장과 대륙별·지역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26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가했고, 온라인으로도 73명이 함께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인 홍익인간을 살려서 거주국에서는 존경받으며 모국에도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아’가 돼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제작한 이진영 감독과 해리 김 하와이 전 시장이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박진 외교장관 “동포사회 화합 강화 위해 한인회장들이 리더십 발휘해달라”

개회식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환영 오찬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헌신해 온 한인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한인회가 구심점이 돼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한인회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가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국정과제이자 동포사회의 관심 사항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한인회장대회에서는 ‘732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공외교, Beautiful Koreans’라는 주제 아래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등 10개 지역의 지역별 현안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도 열렸다.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창단한 ‘라온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을 소개한 캄보디아한인회가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로 선정됐다. 또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병무청 등 유관기관은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되자 일제히 환영

대회 사흘째인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대회에 참석한 한인 회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편안에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




트위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 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러 부처 등에 나누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제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야 했는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해 온 게 10년도 넘었다”며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고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폐막 결의문 “재외동포청 수도권에 설치 촉구”

폐막일인 7일 한인회장들은 전체 회의를 열어 각자의 거주국에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재외동포를 전담할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지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폐막식에서는 대회 공동 의장인 유제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차기 대회 공동의장으로는 김병직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과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선정됐다.

김성곤 이사장은 환송사에서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결정에 따라 동포 정책 및 지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므로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 10월 5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세계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겸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오찬에서 축하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2.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장면. 가운데 무대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4.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지역별 현안 토론 결과 발표하는 지역 대표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서울서 열려… ‘민간 외교관’ 역할 논의

8개국 130여 명 참가… 경기 연천다문화센터에 후원금 전달

국제결혼을 해 해외에 정착한 한인 여성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모색하고, 모국에 다문화 경험을 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이하 월드킴와)가 주최하는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가 10월 13~15일 사흘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13일 개막식에는 미국, 호주, 독일 등 8개국에서 온 130여 명의 회원과 외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월드킴와는 전 세계 16개국 34개 지부에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 단체로, 매년 모국에서 세계대회를 열어 회원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다.

월드킴와는 이날 경기 연천다문화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역대 월드킴와 회장을 역임한 천순복·은영재·정경옥·정명열·정나오미 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문정균 월드킴와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은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 역할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공공외교 역할을 모색하면서 다문화 청소년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혜경 월드킴와 이사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한인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현지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며 한민족의 외연을 넓혀온 것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국제결혼을 한 한인 여성과 가족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이라며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정영국 내외정보센터 회장 등도 참석했다.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개막식에서 나란히 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참가자들

행사 참가자들은 14일 ‘세계를 하나로 민간외교관 월드킴와’라는 주제의 손선홍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기조 강연을 듣고, 바람직한 공공외교 활동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김영순 인천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교수는 ‘한인 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월드킴와는 대회 마지막 날인 15일에 경기도 연천군 연천다문화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청소년과 결혼 이주 여성에게 경험을 전하는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

민혜경 국제결혼여성총연 이사장 “200만 국제결혼 가족 활용해야”

“국제결혼 증가 추세, 한민족 자산으로 만드는 네트워크 필요”

“**한**인 국제결혼 여성은 50여만 명에 이르고,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가족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한민족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늘어나야 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에 참석한 민혜경(69)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이하 월드킴와) 이사장은 10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군인 재외동포의 외연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드킴와는 전 세계 16개국 34개 지부에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 단체로, 매년 모국에서 세계대회를 열어 회원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다.

그는 “엄연히 재외동포임에도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진 것이 국제결혼을 한 한인 여성과 그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민 이사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재외동포는 732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국제결혼 가족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문화로 살다 보니 한인사회 활동을 거의 못 해 드러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이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이 있으며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도 정성을 들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양대를 졸업한 후 대한항공(KAL)에 근무하던 그는 1982년 공부를 더 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다. 이후 1986년 현지인과 결혼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다. 한식당과 일식당을 30년간 경영하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접고 지금은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한다.

그는 “국제결혼 가정을 꾸렸기에 한인사회와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월드킴와는 같은 경험과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고향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온 경험을 모국에 전한다는 사명감에 매년 서울에서 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 인터뷰하는 민혜경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이사장

민 이사장은 “회원들은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로 자녀를 키워 이들 대부분은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어 “자녀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도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우호적”이라며 “이들을 한국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해 우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회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서 차세대 발굴을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지만,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국제결혼을 하는 한인 여성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래알처럼 흩어진 이들을 묶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한민족의 또 다른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상 높아진 미국 ‘한복의 날’ ... 연방 하원의원도 한복 입고 참가

뉴저지서 두번째 한복의 날 기념식... 포트리, 한복의 날 선포 도시 합류

미국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 위상이 급상승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포트리의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10월 16일(현지 시간) 한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를 채택해 선포한 주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한복의 날 기념식은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테너플라이의 공원에서 개최됐지만, 올해는 인근 대도시인 포트리로 장소를 옮겨 확대한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 동부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포트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겠다고 선포했다. 10월 21일은 한국에서 기념되는 한복의 날과 같은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조시 고타이머 연방 하원의원이 조선시대 국왕 복장을 하고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이자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성 강화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미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외교위원장이로서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기념식에 한국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저지에서 열린 한복의 날 기념식의 의미는 너무나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뉴저지주의) 모범적인 행동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보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도 미국에서 열린 한복의 날 행사의 성공을 위해 한복에 대한 고증 등 도움을 줬다.

뉴저지가 한복의 날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AAYC는 중국에서 김치와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복의 날’ 기념식에 조선시대 국왕 복장을 하고 참석한 조시 고타이머 미 연방 하원의원(오른쪽)



미국 뉴저지주 ‘한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과 현지인들

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지난해 초 테너플라이시에서 운동을 벌여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다. 이어 뉴저지 주지사까지 설득해 주 정부 차원에서 한복의 날을 기념하게 만들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에 많은 정치인과 교육자들이 한복을 입어 훨씬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됐다”면서 “‘코리언 한복’(Korean Hanbok) 이 고유명사가 될 때까지 전 세계로 한복의 날 제정을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에 관한 세상의 모든 지식’ 책 발간

서경덕 교수 “김치 종주국 국민 알아야 할 정보 담아”



‘김치에 관한 세상의 모든 지식’ 책 표지

한국인의 김치 사랑은 유별나다.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우고 라면을 먹더라도 꼭 김치를 곁들인다. 무슨 요리든 김치를 넣어 색다른 맛을 낸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국밥, 김치부침개, 김치라면 등 김치로 만들지 못하는 음식이 없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로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이 높아지자,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건강에 유익함은 물론이고 입맛도 사로잡는 김치 자랑을 하느라 입이 아플 정도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조상들의 지혜로 탄생한 김치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자랑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가 최근 김치의 과학,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단행본 서적 ‘김치에 관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정확하고 친절한 김치 안내서로서 그동안 세계김치연구소가 진행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에 더해 김치와 관련된 최근 이슈, 날로 성장하는 김치 산업의 현황 등을 소개하며 세계인의 음식으로 부상한 김치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한다.

1부 ‘김치의 과학’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 담긴 놀라운 비밀과 건강 기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2부 ‘김치의 역사’, 3부 ‘김치 속 문화’에서는 김치의 지나온 세월과 문화적 고유성을 소개한다.

4부 ‘김치와 산업경제’, 5부 ‘김치의 맛’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과 김치 산업의 현주소를 상세히 짚었다.

연구소 글로벌 홍보대사를 맡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책은 김치 종주국의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김치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며 “한국인의 필독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네스코는 2013년 ‘한국의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를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장해춘 소장은 “이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도록 하고, 앞으로도 김치의 과학, 산업, 문화 측면의 활발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김치의 가치를 국내외에 꾸준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10월 1일부터 서점과 온라인에서 판매에 들어갔다. [▶](#)



헤럴드 김

한인 헤럴드 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 시의원 3선 성공 시의원 겸 부시장, 10월 지자체 선거서 1위 차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시의 한인 시의원이 10월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오로라시는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인구 6만여 명의 소도시로 한인 1천여 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헤럴드 김(한국명 김종수·53) 시의원 겸 부시장은 현지 제6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3번째 출마해 그렉 스미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부모(김기열·김신덕 씨)를 따라 캐나다에 이민한 그는 퀸스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뒤 증권회사에 취직해 '증권맨'으로 근무했다.

이후 연구, 분석, 투자,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으로 일했고, 비영리단체 월드비전 캐나다의 지역담당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기금 마련에 앞장 서기도 했다.

2014년 시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됐고, 4년 뒤 재선한 그는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한인으로는 처음 부시장에 올랐다. 이번 캐나다 지자체 선거에 한인 후보 5명이 출마했지만, 김 의원 빼고는 모두 낙선했다.

美 한인 스타일리스트, 英 패션협회 '올해의 뉴웨이브 50인'에 선정 최혜린 씨 "한국 문화,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꾸는 것 즐거운 일"

재미동포 스타일리스트가 영국 패션협회(BFC)가 선정하는 '2022 주목할 만한 뉴 웨이브 & 크리에이티브 50인'에 뽑혔다.

BFC 홈페이지와 패션 어워드 닷컴(fashionawards.com)이 10월 발표한 50인 리스트에 따르면 주인공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혜린 씨다. 뉴웨이브 & 크리에이티브는 패션 및 디자인계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셋 별'이라는 뜻이다.

최 씨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를 졸업하고, 뉴욕의 넷타포르테에서 스타일링 경력을 쌓았다. 프리랜서로 독립한 후 톰 브라우니, 나이키, 애플, 맥 코스메틱스 등과 일했다. 그의 작품은 보그, 보그 코리아, 틴 보그, 얼루어 등 패션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 매체에 소개됐다.

최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옷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개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개체이기에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춰 접근하려고 노력한다"고 자신의 스타일링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과 속담, 옛날이야기, 역사, 우리 가족에게서 늘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한국 문화



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은행인 오픈뱅크의 이사장 최화섭 씨의 둘째 딸이다.

권현익 케임브리지대 교수, 한국 학자로는 최초로 영 학술원 가입 냉전사 연구하는 세계적 인류학자… “한국학, 가장 글로벌한 지역학”

120년 역사의 영국 인문사회과학 국립학술원에 한국 학자가 처음으로 회원으로 뽑혀 영국 내 한국 관련 연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세계적 인류학자인 권현익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영국 학술원(British Academy)에 회원(Fellow)으로 선발됐다. 학술원 가입행사는 10월 4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학술원 건물에서 개최됐다.


1902년 설립된 영국 학술원은 국내외 총 회원 약 1천400명이며 매년 최대 52명을 신규 회원으로 선발한다. 케임브리지대는 올해 권 교수를 포함해 교수진 5명이 신규 학술원 회원이 됐다고 전했다.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사회인류학 석좌교수로 있는 그는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냉전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증적 현장 연구자로 명성이 높다.

권 교수는 “한국인으로 처음이면서 한국학 연구자로서도 처음 영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를 인정받았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한국학 등 아시아학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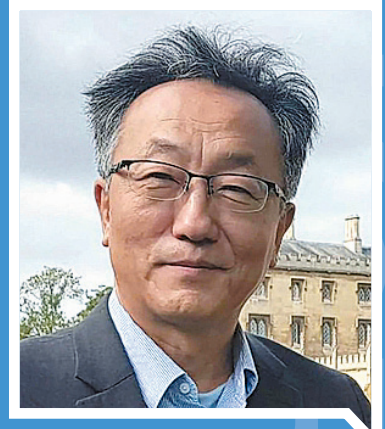
권 교수는 학술원의 인류학, 아시아학, 현대사 관련 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학술원에서 영국 국가 연구비를 배분하는 일과 앞으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향방을 선도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권 교수는 세계 인류학과 한국학 분야 주요 상을 휩쓸어왔다.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종교·인류학적으로 접근해 유족들의 문화를 연구한 ‘학살, 그 이후’로는 ‘인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인류학회 기어츠상을 받았다. 2009년엔 동남아시아 연구 부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조지 카 힌상을, 2019년엔 저명한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의 이름을 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 아시아학회 제임스 팔레상(2022), 대한민국의 경암학술상(2016)과 세종문화상(2019) 등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다가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과로 옮겼으며,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맨체스터대, 에든버러대, 런던정경대에서 가르치다가 2011년 케임브리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대 인류학과 초빙 석좌교수를 지내고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메가아시아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다. 



최혜린



권현익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 한인 성(姓) 딴 상(賞) 생긴다

신태량 씨 200만 달러 모교 쾌척에 '신 휴머니테리언 어워드' 신설

1857년 개교한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 한인의 성을 딴 시상 프로그램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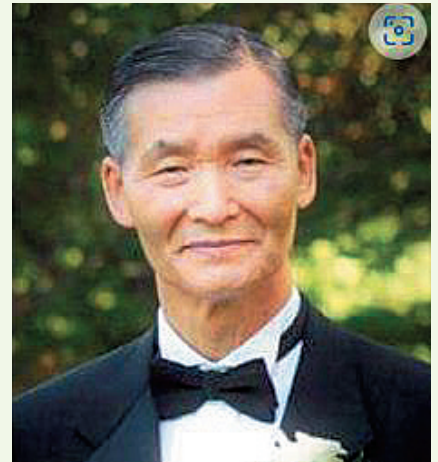
현지 한인 방송 'WIN-TV'에 따르면 상의 이름은 '신 휴머니테리언 어워드'(Shin Humanitarian Award)로, '스웨거 푸드'사를 운영하는 신태량(80) 대표의 성을 땀다.

대학은 앞으로 모범적인 휴머니티를 실천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 인권 보호, 환경문제 대처, 성차별 금지 이슈를 계몽하고 선도적인 리더로서 정직과 용기를 실천하는 인물을 선정해 상을 준다는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기회도 준다. 자세한 시상 계획과 상금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학은 신태량 대표가 최근 모교에 기부한 200만 달러(약 28억원)로 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태량 대표는 "서로를 존중하는 휴머니티를 실천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그는 부산대 식품가공학과를 졸업하고, 롯데식품공업에서 근무했다. 1974년 아내 안유현 씨와 미국에 이민해 시카고의 한 식품업체 연구소에서 일했다. 4년 만에 시카고의 버논힐스에서 식품회사인 '스웨거 푸드'사를 창업했고, 현재 세계적인 식품회사 크래프트, 프리토레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올해의 공급업체', '소수계 우수기업'에 뽑힌 중견기업이다.

회사를 경영하며 일리노이주립대 어바나-삼페인 캠퍼스에서 식품영양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중서부 지부 회장을 지낸 그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KSEA 내 3만5천 달러(약 5천만원)를 기부해 '신태량·신유현 스킨라시프'를 설립했다.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을 맡아 한인사회에 봉사도 했다. **창**



신태량 '스웨거 푸드' 대표(시카고 한국일보 제공)



신태량 대표가 일리노이주립대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소식 전하는 한인 방송 'WIN-TV'의 화면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 “주류사회 함께하는 한국 축제 열겠다”

첫 여성 회장 “차세대 끌어안기 중요... 멘토링 · 청년캠프도 마련”

“한가위 축제에 현지인이 절반 이상 참여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인기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 도시의 자랑거리가 될만한 ‘한국문화 축제’를 열겁니다.”

10월 4~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전소영(44)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장의 목표는 ‘한국문화 축제’를 요하네스버그시의 명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2년 만에 축제를 재개하면서 타민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짧은 기간 홍보했는데도 많이 참여해 한류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4일 요하네스버그 시내 초등학교를 빌려 개최한 한가위 축제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500여 명이 몰렸다.

전 회장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통 놀이가 가장 인기였다”며 “축제에 참여한 현지 한류 동호인들이 내년에는 가족과 친구들도 데려오겠다고 꼭 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한복 체험 부스에는 현지인들이 줄을 섰고, 준비한 한국 음식들도 순식간에 동이 났다”며 “축제를 확대해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0여 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경쟁력을 높이려고 2008년 남아공에 어학연수를 왔다가 눌러앉았다. 가발과 미용 재료 등을 유통하는 ‘탑걸 헤어’ 대표인 그는 2009년부터 한인회에 몸을 담았다.

이후 사무총장과 수석부회장을 거쳐 지난 3월 선거에서 한인회장에 당선됐다. 32년의 역사를 지닌 남아공 한인회의 첫 여성 회장이면서 최연소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전 회장은 “봉사하는 데 남녀 구분은 의미 없다”며 “4천여 명의 한인들의 구심점이자 차세대가 참여하는 한인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청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이 경험담을 전하는



언론 인터뷰하는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



지난 9월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가위 축제’ 장면

진로 · 취업 멘토링 행사로 청년들의 반응이 좋았다.

내친김에 ‘남아공한인청년회’도 발족시킨 그는 “차세대가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와 함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한인 청년캠프를 열어 차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봉사가 체질이라서 힘든 줄 모른다”고 즐거워했다. [▶](#)

“그녀 없인 외교 못해”…

美 국무장관, 한국계 통역국장 역할 조명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국장 “소통은 외교의 핵심”



1. 미 국무부가 9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이 한국계인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만나 회담을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사 이연향(오른쪽) 씨가 통역을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외교에서 통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계 통역국장의 역할을 조명해 관심을 끈다.

블링컨 장관은 9월 30일(현지시간) 직접 국무부를 돌며 부서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 연재물인 ‘토니와의 산책’에서 통역국을 방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외교통역팀의 정말 필수 멤버로 우리는 그녀와 팀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한국계인 이연향 통역국장을 소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한 이 국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통역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인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통역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통역을 담당한다.

이 국장은 현재 통역국에 60여 명의 상근직이 있으며 약 1천 명의 통·번역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

장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언어를 커버한다”며 “큰 규모의 팀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통역관이 단순히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어감과 강조점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장은 “외교에서는 표현을 매우 신중히 선택하기 때문에 외교 통·번역은 최고 수준의 통·번역”이라며 “어려운 일이지만 지루한 적이 없으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통역관이 일하는 부스로 들어가 이 국장이 동시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서 “대단한 실력이고 우리는 통역 없이 외교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통은 외교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비롯해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통·번역가를 찾고 있다”며 “여기 와서 시험을 보고 우리 팀의 일원이 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동현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특파원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의 첫 ‘한국식’ 졸업식

“한국의 화려한 입학식·졸업식 부러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10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다음 주부터 한국학 공부를 시작하게 될 새내기 50여 명과 교직원, 교수·강사진은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을 위해 ‘이젠 안녕’을 열창했다.

앞서 새내기들은 선배들을 위해 ‘사랑해, 당신을’과 ‘홀로아리랑’을 힘차게 불렀다. 후배들과 스승의 열창에 졸업생들은 감동한 목소리로 애정이 어린 답사를 했다. 졸업생 케이트는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하시니 질문이 있으면 항상 찾아가고, 선배들과도 잘 어울려 도움을 얻길 바란다”면서 후배들이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기원했다.

이날 졸업식은 소속 학장 겸 학과장이 처음으로 졸업장을 직접 읽고 수여하는 ‘한국식’으로 진행됐다. 학사와 석사 졸업

생 14명은 이날 한국학 전공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의 한국어로 된 졸업장을 받고, 한국학과가 새겨진 색동 술을 두른 채 박수를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독일에서는 통상 별도의 졸업식이 없고, 집으로 졸업증서가 배송되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하면 한국학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화려하게 졸업을 기념한 셈이다.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역사문화학부 학장 겸 한국학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과 졸업생이 한데 모여 한국식 졸업식을 거행했는데, 해마다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이는 한국학 전공자로서 독일과 유럽에서 활약할 신입생과 졸업생들이 서로 긴밀히 소식을 주



1. 10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졸업식에서 새내기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졸업생들을 위해 ‘이젠 안녕’을 합창하고 있다.
2.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에서 열린 첫 한국식 졸업식에서 최우수 논문을 쓴 석사 졸업생 안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입학식과 졸업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서 부럽다는 학생들이 많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졸업장과 졸업식을 원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부모도 초청해 이날 행사가 열린 한국학과 건물 1층은 인파로 가득했다.

K-드라마의 독일 내 확산과 관련한 최우수 석사논문을 쓰고 졸업해 해외무역 회사에 다니는 안나는 “한국에서 1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졸업식이었다”면서 “한국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재밌었지만, 친한 친구와 선배들을 많이 얻었다.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잘 지내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학과 새내기 박지훈, 마리, 스펠야는 “지난 7일간 오리엔테이션에서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익혔는데, 발음도 더 자연스럽게 배우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 멋졌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선배들과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아칸소대 성악과 박문숙 교수(소프라노)가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차이콥스키의 ‘오직 그리움은 아는 이만이’, 산유화, 새타령, 수선화, 이화유, 이응아리랑, 아리아리랑 등을 선보였다.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권인희와 첼리스트 공유빈이 함께했다.

이날 합창 지휘도 맡은 박 교수는 지난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쳤다. **▶**

이을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특파원

세계한인회총연 “내외동포 상생·인류공영 이바지할 플랫폼 구축”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10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창립 1주년 워크숍에서 내외동포 간 상생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심상만 회장과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인 유제현 수석부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전세계 한인네트워크 구축 ▲한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활동 활성화 ▲동포사회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모국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과 한인회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세한총연은 전 세계 한인회장들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732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또한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동포청 국회통과를 기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동포사회 숙원 해결 위해 여야가 합심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행사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이사장, 대륙별 한인회연합회 회장과 세계한인회장대회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10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총연합회 창립 1주년 워크숍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에 참석한 각국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세한총연은 전 세계 10개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와 500여 개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은 한인회장들로 구성됐다.

런던한국학교 개교 50주년... “유럽에서 가장 오래돼”

영국 런던 남부 외곽의 한글학교인 런던한국학교가 10월 17일(현지시간) 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치렀다.

런던한국학교 관계자는 “1972년 대학원생이던 정미령 전 옥스퍼드대 교수가 학생 9명을 데리고 ‘재영어린이학교’로 출발했다”며 “독일 1973년, 프랑스 1974년보다 앞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학교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런던한국학교는 현재 교사 32명에 학생 3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와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는 비정규학교로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교과서와 일부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다.



런던한국학교 학생들이 10월 17일(현지시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학교 로비에서 숫자 ‘50’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울려 퍼진 “영원하라! 고려극장”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극장장 김 엘레나)이 창립 90주년을 맞아 10월 1일(현지시간) 저녁 알마티의 고려극장에서 기념식과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최유리 전 상원의원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문화부와 알마티시청 관계자, 고려인 동포, 한국에서 온 축하사절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다우렌 아바예프 카자흐스탄 문화부 장관의 축사 대독, 신유리 고려인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유공 단원에 대한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193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돼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1991년 소련 해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90년 동안의 고려극장의 역사를 표현했다.

특히, 고려극장의 5세대, 6세대 단원들이 인민배우 김림마 선생



10월 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열린 창립 90주년 기념공연에서 고려인 원로 및 5~6세대 배우들이 무대에 함께 올라 관객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면서 화답하고 있다.

을 비롯한 원로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고려극장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문화를 영원히 계승시켜나갈 것”이라며 “영원하라! 고려극장”이라고 말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통틀어 존재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공연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단체인 고려극장은 일제 치하이던 1932년 9월 9일 연해주에서 창설됐다. 이후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로 옮겨왔고 이후 우수토

베를 거쳐 현재 알마티에 자리를 잡았다.

‘춘향전’, ‘홍부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300여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 고려극장은 연극단, 성악단, 무용단, 사물놀이팀을 두고 카자흐스탄 각 도시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CIS) 순회공연과 모국의 극단들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각국 동포 단체, 이태원 사고 애도 성명 내고 위로 전달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공동회장 국승구·김병직) 등 세계 각국의 대표 동포단체들이 이태원의 압사 사고와 관련해 애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11월 2일 성명에서 “세계 500여 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상심에 처해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750만 채외 동포와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현지 한인들이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모국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도 ‘위로의 글’에서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고로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싱가포르 한인회,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 등 각국 한인회는 한인회관 내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운영했다. 이들 한인회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성명도 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유적 '백제 왕도(王都)'의 보석



1

전북 익산은 충남 공주와 부여, 경북 경주와 함께 2004년 한국의 '4대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공주, 부여에 이은 백제의 왕도이기도 하다. 한때 동아시아 최대 사찰이었던 미륵사의 터와 석탑, 왕궁리 유적은 백제 왕도로서의 익산의 위엄을 잘 보여준다.

석조 문화재 보수의 새 장 연 미륵사지 석탑

기자가 익산 미륵사지를 찾은 날은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투명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동양 최대 절터로 평가받는 미륵사지는 미륵산에 포근히 안겨 마치 힐링 공간 같았다.

그곳에는 한국 문화재 보수의 새 장을 연 미륵사지 서쪽 석탑(이하 '미륵사지 석탑')이 있었다. 이 석탑 오른쪽에는 실패한 문화재 복원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미륵사지 동쪽 석탑(이하 '동탑')이 있다. 미륵사지 석탑과 동탑은 처음에는 모양과 높이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쌍둥이 탑이다. 그러나 복원 및 보수의 개념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복원과 보수가 끝난 지금 두 탑은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이다.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석탑이 많다. 석탑 안에는 사리장엄구, 불경 등의 귀한 문화유산이 간직돼 있다. 석탑에서 나

온 유물은 고대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때가 많다. 미륵사지 석탑은 한국의 목탑이 석탑으로 바뀌는 이행 과정을 잘 보여준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 시절 지어져 조선 시대인 160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터의 규모가 확인된 사찰 중에서는 백제 나이가 동아시아의 최대 사찰이었다. 미륵사지의 상징처럼 우뚝 솟은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일 큰 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2019년 장장 20년에 걸친 보수 작업의 대장정을 마쳤다. 단일 문화재로는 수리 기간이 가장 길다. 석탑이 수리를 끝내고 준공된 뒤 미륵사지를 찾는 관람객은 이전의 연간 수만 명 수준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문화재위원회가 1999년 구조 불안정을 이유로 해체, 수리를 결정했을 때 미륵사지 석탑은 콘크리트 덩어리나 다름없었다. 일제가 1915년 이 석탑의 무너져 내린 부분을 수리하면서 콘크리트를 덕지덕지 발랐기 때문이다. 해체 과정에서 제거한 콘크리트 양은 185t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 복구한 미륵사지 석탑은 보수하다가 만 듯한 느낌을 준다. 석탑 중 유실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 없는 채로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는 추정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

과를 근거로, 현대의 온갖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졌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원형대로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은 문화재로서 진정성, 역사성을 확보했다. 한국의 석조 문화재 복원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동탑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복원됐다. 당시 동탑은 본래의 형태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내리고, 잔해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당국과 학계는 나름의 연구를 근거로, 탑의 높이와 모양을 추정했다. 그리고 추정을 근거로 동탑을 9층 탑으로 복원했다. 원래 석탑을 구성했던 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로 돌을 새로 깎아 탑을 쌓았다. 그 때문에 '졸속 복원' 논란이 제기됐고, 동탑은 '성형미인', '죽은 탑'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미륵사지 일대는 지난 2006년 시작한 관광지 조성 사업을 16년 만인 올해 8월 끝내고 정식 개장했다.

무왕의 '백제 부활' 꿈 서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에서 남쪽으로 5km쯤 떨어진 왕궁리에는 또 하나의 큰 백제 유적지인 왕궁리 터가 있다. 백제 무왕이 왕궁을 지어 살았던 곳이다. 그의 사후에는 사찰로 운영됐다.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은 40여 년 재위하며 백제의 부활을 꿈꿨다. 부활 운동은 그가 태어나 자랐던 익산을 무대로 펼쳐진다. 현재의 서울을 500년 가까이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는 공주를 거쳐 부여로 천도했다가 무왕 때 익산에 왕궁을 지은 것으로 최근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왕궁리 터에는 절제된 조형미로 유명한 오층석탑(국보 289호)을 제외하고는 왕궁 건물과 시설이 모두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다. 거대한 왕궁터를 오층석탑이 홀로 지키고 있다. 왕궁리 유적 조사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사 결과 백제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외곽 담장과 내부 구조가 확인됐다. 왕궁의 남측 절반은 의례와 정무를 위한 공간이었고, 북측 절반은 휴식 공간인 정원과 후원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북측 공간에는 당시로는 최고 귀중품이었던 금과 유리를 생산하던 공방이 있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화장실 유적이 있다. 이 화장실 유적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었다. 화장실을 경사지에 만들고, 경사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해 오물이 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강으로 흘러가게 했다. 또 화장실 구덩이를 3m 이상으로 깊이 파고, 구덩이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는 구덩이의 높은 곳에 위치시켰다. 현대 정화조 시설과 유사한 원리의 구조라 할 만큼 지혜롭다.

왕궁리 터는 백제의 왕궁 축조 방식과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로서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장]**



2



3



4

1. 5층 석탑과 일부 초석만 남아 있는 익산 왕궁리 터
2.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전경
3. 20년 보수 공사 마치고 2019년 4월 30일 일반에 공개되는 미륵사지 서탑
4. '실패한 문화재 복원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륵사지 석탑의 현재 모습

재외동포재단, 한인의 美 하원의원 도전기 다룬 다큐 '조선' 시사회 후원

2020년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5명의 한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조선'의 시사회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CGV에서 열렸다.

역대 가장 많은 한인이 출마한 기록을 세운 이 선거의 출마자는 데이비드 김,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미셸 박 스틸, 앤디 김, 영 김 등이다.

재미동포 변호사 출신인 전후석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모습을 교차시키며 지난 30년간 동포사회가 일궈낸 변화와 새로운 아메리칸드림을 조명했다.

또 이들의 선거 과정을 통해 현재 미국 내 한인사회의 현주소도 소개했다. 실제 선거에서는 데이비드 김을 제외한 4명이 당선됐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5명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성장했고,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 변화하는 재미동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화는 11월 3일 일반 관람객들 대상으로 개봉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 (커넥트픽처스 제공)

한인 첫 이민 120주년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 인천서 열려

한국인의 첫 해외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10월 4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인천광역시·KBS와 함께 '2022 코리안 페스티벌-120년의 꿈'이란 주제로 축제를 개최했다.

1902년 12월 22일, 대한제국 젊은이 121명의 첫 이민단은 인천 월미도를 출발했다. 이들은 일본 선박 겐카이마루(玄海丸)호에 몸을 싣고 나가사키(長崎)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신체검사에 탈락한 19명을 제외하고 102명이 미국 상선 젤릭호로 옮겨탄 뒤 이듬해 1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오랜 여정으로 건강이 악화한 9명이 귀국하고 93명만이 오하우섬의 모쿨레이아 사탕수수 농장으로 투입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해외



10월 4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코리안 페스티벌-120년의 꿈'의 무대 모습

이민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런 이민 역사 속에서 애국심과 열정으로 살아온 이민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에서는 애플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서 선자 역으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김민하가 한인 이민 120년 역사를 되짚는 특별 프리젠티어

로 나섰다. 배우 주종혁의 사회로 뮤지컬 배우 김소현, 국내 대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 서도밴드, 소향, 에일리, 황치열, 김재환, 그룹 위키미키의 최유정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2023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 실시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수요 조사 일정은 2022년 11월 11일(금)부터 12월 12일(한국시간 기준) 32일간이며 사업 관련 상세 문의를 코리안넷 홈페이지 해당 코너(https://www.korean.net/portal/pg_okbusiness_demand_info.do)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로 하면 된다.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문의를 전화(82-64-786-0293, 한국시간 기준 09:00~18:00)나 이메일(pms01@okf.or.kr)로 하면 된다.

이외 별도 수요 조사 시행 예정 사업은 ▲고려인 동포 권익 신장 지원 ▲한 인회관 등 건립 지원 ▲재일민단 지원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조선족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다문화 취약 동포 지원 ▲전통문화 옹호 지원 ▲차세대 해외입양 동포 지원 등이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이기거나 혹은 즐거거나

플뢰르 펠르랭 /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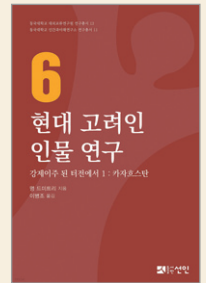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중소기업·디지털경제부 장관, 통상 국무장관, 문화부 장관 등을 지낸 한국인이 있다. 2013년 ‘한국의 딸’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 플뢰르 펠르랭이 바로 그다. 펠르랭은 당시 뉴스와 관련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한국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기사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삶의 궤적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고민과 성찰을 엮은 책을 펴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됐다가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녀의 일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라 간 국경보다 마음의 국경을 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현대 고려인 인물 연구 6. 카자흐스탄

명 드미트리/선인

160여 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다. 13가구 40여 명의 정도로 시작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이제 50만여 명에 이르렀다.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역사부터 한국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국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왔다. 오늘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인물 연구에 대한 학술 총서가 발간됐다. 최근 발간된 6번째 ‘현대 고려인 인물 연구’ 총서는 카자흐스탄에 사는 현대 고려인 인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저자는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명 드미트리이다. 콜호스(kolkhoz·집단농장)의 재건에서부터 고려인 공동체의 가족, 사회생활, 결혼 등 민족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현대 고려인들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자.





호주 캔버라·시드니 ‘한민족 축제’ 3년 만에 재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호주 한민족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호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동식)은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함께 10월 8일 캔버라의 캄브리문화센터, 10월 11일 시드니의 더 콩코스 콘서트홀에서 각각 한민족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국악 무대로 꾸며졌으며 속의 춤, 입춤, 진도복춤, 경북궁타령, 꽃타령, 남도 민요 등 한국 중요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출연했다. 유희스카 밴드의 공연도 열렸다. 자메이카 장단 스카와 한국의 휘모리장단의 흥겨움을 북돋워 주는 유희스카 밴드는 MZ세대 취향을 저격하는 공연단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공연에서는 레게 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면서 색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월드옥타, 방글라데시 다카에 지회 설립... 67개국 141번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서남아시아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방글라데시 다카에 신규 지회를 설립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로써 월드옥타는 전 세계 67개국에 141개 지회를 둔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됐다. 초대 다카 지회장은 백명호 미래네트워크 대표가 임명됐다. 20여 년 전 현지에 진출한 그는 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ISP)을 운영하고 있다. 한인회 홍보국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의료봉사를 통해 현지인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백 지회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경제인들이 정착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 서울서 세계한상지도자대회 개최

재외동포 상공인 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총·이사장 김덕룡·회장 한창우)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 15층에서 제48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김덕룡 이사장의 대회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가온셀의 사업설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하원의 자서전 ‘버려진 돌’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이어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이 주최하는 제19차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개최식도 열렸다. 1993년 창립한 세총은 세계 68개국 200여 개 한인상공인단체와 경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원도가 매년 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한상지도자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 120년사 조명 ‘그날의 물결’ 특별전

인천시립박물관 산하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한인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 중이다.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라는 주제아래 열리는 전시로 10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700여 점을 공개한다. 우리나라의 최초 공식 이민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121명이 일본 여객선 겐카이마루(玄海丸)호를 타고 출발해 신체감사에서 탈락한 19명을 제외한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첫발을 디딘 것에서 시작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 속 한인사회와 모국 기여 재외동포의 활약상 ▲하와이 노동 이민을 비롯해 고려인 강제 이주와 재일동포 ▲재외동포의 독립운동 ▲해방, 6·25전쟁과 미군 신부·입양 ▲파독 광부·간호사와 중동 건설 노동자 등 5부로 나눠서 소개한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중심거리 ‘프라치스-한국’ 길로 개명

내년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앞두고 상파울루 한인타운의 중심거리인 프라치스(Prates)길의 명칭이 ‘프라치스-한국’ (Prates-Coreia)길로 공식 변경됐다.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상파울루시는 이를 기념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프라치스-한국길에서 거리 명칭 변경 및 거리 표지판 교체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한인타운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차라덴치스역 안에는 주재범 픽셀아트 작가의 한-브라질 문화 상징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해당 지하철역명 역시 ‘차라덴치스-한국역’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포용적 재외동포 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됐다. 재외동포 관련 각종 현안과 정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가 생긴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2021년 기준 732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내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포함한 전체 한민족 중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미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공공외교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한국의 인적자원으로 인식함에 따라 재외동포의 권익과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재외동포청은 732만 재외동포의 규모와 중요성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방향성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나라에 사는 동포들을 포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행정력과 예산을 재외동포들에게 할애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내 편과 네 편을 구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외동포들에게 “거주국과 한국이 전



김점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쟁을 벌이면 어느 편을 들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양자택일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나는 “거주국과 한국의 전쟁을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재외동포들이다”라고 답변하고 싶다. 실제로 다양한 국적의 재외동포들은 모국 한국과 현재 거주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사회·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들은 오랜 세월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정부 기관보다 먼저 재외동포들의 경제단체를 조직해 한상(韓商) 네트워크 등을 구축했다. 올해는 동포사회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3년 만에 한민족 최대의 네트워킹장인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를 치러냈다.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통해 각성한 미주 동포들은 주류사회에 의사전달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며 권익을 증진해왔다. 이제 732만 재외동포들은 모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732만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에 의한 기관이 돼야 한다. 재외동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익뿐 아니라 글로벌 다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장**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서비스 중단 안내합니다

KOREAN NET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서비스 중단 안내

홈페이지 지원 및 운영 사업 관련하여 노후 된 홈페이지 솔루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일자

2022. 10. 26(수) ~ 2023년 1월 중순(예정)
(한국시간 기준)

문의처 064-786-0292 (e-한민족사업부)

홈페이지 지원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홈페이지 솔루션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11월 5일: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환영식 기조 강연
 - 11월 11일: '2022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환영 오찬 참석
 - 11월 23일: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전문가 간담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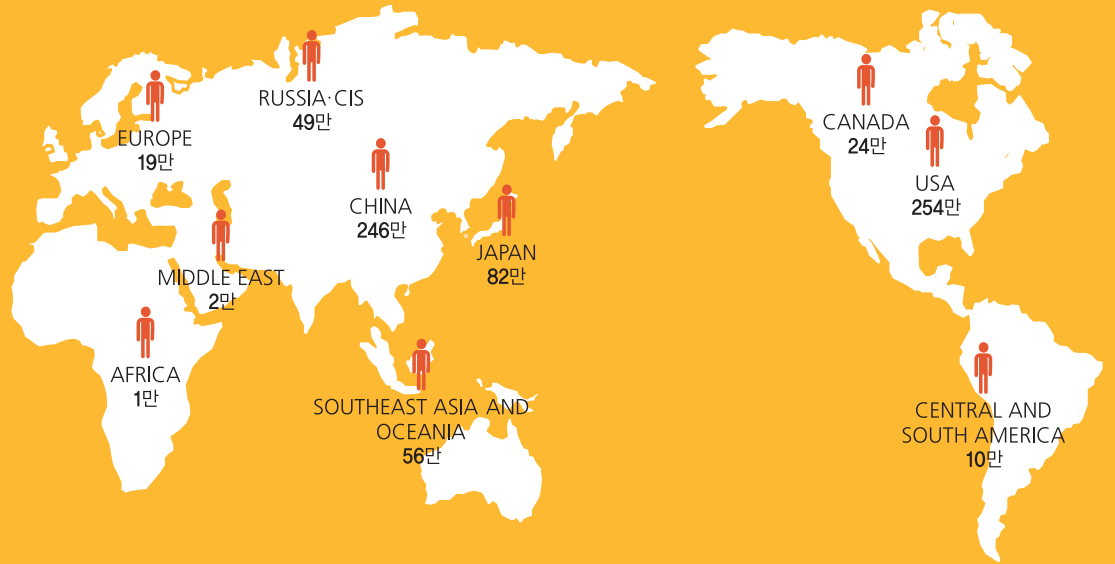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